

약과 식품의 상호작용

- 약과 알코올(2) -

저자 송보완
경희의료원 한방약무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미국 NIH 산하 알코올남용의존증연구소(NIAAA)의 보고에 의하면 술을 자주 마시는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알코올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음주자에서는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사용률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습적인 음주자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도 의약품 복용과 함께 알코올을 음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일부 의약품(acetaminophen, triazolam, warfarin, cephem계 항생물질)과 알코올의 병용은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키워드

알코올, acetaminophen, triazolam, warfarin, cephem계 항생물질

4. Varenicline

미국 FDA는 금연보조제 성분인 varenicline(첵픽스정 0.5mg, 1mg)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알코올을 섭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지만 발작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했다.

Varenicline 함유 의약품의 알코올 상호작용 및 발작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약이 알코올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 때까지 음주량을 줄이도록 하는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5. 혈당강하제

적당한 알코올 섭취(하루 1온스 정도)는 당뇨병환자의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형 당뇨병환자는 식이요법을 하든, 약물치료를 하든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경우 저혈당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sulfonylurea제나 insulin을 투여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음주 시 glycogen의 고갈을 막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식사를 하지 않은 채로 알코올과 당뇨병약을 복용할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증식성 및 삼출성 망막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당뇨병환자에서 알코올의 섭취는 당뇨치료의 순응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시면 신경병과 위염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은 질환의 감시와 관리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6. 고혈압치료제

역학 연구에서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이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알코올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작용은 복합적이다. 급성중독 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심박동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혈관수축효과는 알코올의 직접적인 혈관확장효과에 의해 없어질 수도 있다.

음주를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항고혈압제의 복용 순응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알코올을 병용 시 혈압조절이 힘들고 항고혈압제의 부작용도 증가한다. 이뇨제는 음주환자에서 저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술을 갑자기 끊으면 저칼륨혈증의 증상인 무기력감, 근병증, 심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칼륨을 보충하고 혈중 칼륨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저마그네슘혈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같이 교정하는 것이 좋다.

7. Warfarin

알코올은 그 자체가 항혈소판작용을 지니고 있어 INR이 목표치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성 경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와파린의 대사를 억제하여 와파린의 작용을 증강시키므로 와파린 복용 6~7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MAO저해제

MAO저해제(iproniazid, nialamide, phenelzine)는 비특이적인 효소저해작용으로 알코올의 대사를 저해하고 작용을 증가시킨다(일부 술은 tyramin을 함유하고 있어 MAO저해제와 병용투여하면 혈압상승작용이 나타난다).

약사 Point

- ① 알코올 중독자 또는 알코올 연용자가 acetaminophen을 과량 복용하면 acetaminophen의 간독성 유발 대사물에 의해 치명적인 간장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② 음주에 의해 benzodiazepine계 수면약인 triazolam의 부작용(기억장애, 의식장애, 휘청거림)이 증강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적으로 작용하기도 때문에 음주 시에는 triazolam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Triazolam 외에 다른 benzodiazepine계 약물(diazepam 등)과의 병용도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일부 cephem계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음주를 할 경우 안면홍조, 박동성두통, 동계, 빈맥, 구토, 발한, 호흡곤란, 현훈, 혈압저하, 의식혼탁 등과 같은 disulfiram양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항생제를 주사할 때는 주사 후 적어도 1주일간 금주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Varenicline은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약이 알코올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 때까지 음주량을 줄이도록 하는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 ⑤ Sulfonylurea제나 insulin을 투여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알코올과 당뇨병약을 병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 ⑥ 알코올은 warfarin의 대사를 억제하여 warfarin의 작용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warfarin 복용 6~7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

藥と食の相互作用(上), 澤田 康文, 의학ジャーナル社(2006)
 의약품안전성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3. 12